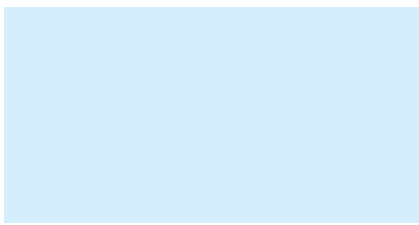


12
2021

재외동포의



특집 _ 재외동포재단, 미주 지역 동포사회에 사업 알리고 현황 청취
기획 _ 동포사회 대선 참여 운동 활발... “재외동포 결집된 힘 보여줘야”
화제 _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임기 말 로드맵 발표, “6개월 마무리에 최선”



한민족의 경제·문화 영토를 넓혀온 '민간 외교관' 재외동포, 연합뉴스가 함께하겠습니다

얼마 전인 10월 서울에서 750만 재외동포 사회의 중요한 행사들이 잇달아 열려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포사회 중심단체인 한인회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한민족 경제 영토를 넓혀온 한상(韓商)들이 모인 '세계한상대회', 재외동포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주최한 '세계한인경제인대회'였습니다.

67개국에서 310명의 한인사회 리더들이 참여한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는 '세계한인회총연합회'가 출범했습니다. 이 협회는 앞으로 동포사회와 전 세계 한민족 공동체를 아우르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며 동포 권익 신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45개국에서 1천500여 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가한 세계한상대회'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모국뿐 아니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한상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는 64개국 1천여 명의 한인 경제인들이 참여해 수출 상담, 해외취업 컨설팅과 면접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과 청년들이 해외에 진출할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이들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었던 것은 거주국에서 훌륭한 구성원으로 뿌리내리면서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온 750만 재외동포의 뛰어난 역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한 축이 됐고 그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750만 재외동포가 해외로 이주한 배경은 다양합니다. 구한말 먹고살기 어려워 국경을 넘기도 했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또는 핍박에 내몰려 해외로 이주하기도 했습니다.



성기홍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

다. 일제의 강제 동원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파독 광부·간호사로, 1980년대에는 중동 근로자로, 외화벌이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낮선 외국 땅에서 때로는 차별을 받으며 정착한 이들이 오늘날에는 기업가, 정치인, 학자, 관료 등으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거주국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고, 대한민국과 거주국의 교류와 협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도 원조를 받던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원조를 주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 등 한류는 세계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인기 대중문화로 자리 잡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외국인들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한민족의 경제·문화 영토를 넓혀온 '민간 외교관'인 재외동포의 눈부신 활약과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사로는 유일하게 '동포·다문화부'를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27국 36개 지역 61명 규모의 국내 언론으로는 가장 많은 특파원·통신원도 두고 있습니다. 동포·다문화부와 방대한 해외 취재 네트워크를 통해 동포사회의 활동에 늘 관심을 기울이고 발 빠르면서도 심도 있게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사로는 유일하게 '동포·다문화부'를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27국 36개 지역 61명 규모의 국내 언론으로는 가장 많은 특파원·통신원도 두고 있습니다. 동포·다문화부와 방대한 해외 취재 네트워크를 통해 동포사회의 활동에 늘 관심을 기울이고 발 빠르면서도 심도 있게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이자 소중한 자산인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정체성 확장을 위해 연합뉴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인사회의 결속을 장려하고 이들이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충실하게 보도하겠습니다. 그 길에 재외동포재단이 함께해 든든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 02 권두언 한민족의 경제·문화 영토를 넓혀온 '민간 외교관' 재외동포, 연합뉴스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기홍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
- 04 특집 재외동포재단, 미주 지역 동포사회에 사업 알리고 현황 청취
- 06 기획 동포사회 대선 참여 운동 활발... "재외동포 결집된 힘 보여줘야"
- 08 화제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임기 말 로드맵 발표, "6개월 마무리에 최선"
- 10 글로벌 코리안 최도선 아르헨 피보디 대표, 입지전적 스토리로 현지서 주목
미국 동포 한지작가 정미호, 서울시 전시회 '자연과 함께' 개최
뉴질랜드 의회에 올려버진 한국어, 번역 기도문 낭독
- 12 한민족 공감 김치 세계화에 앞장서는 '김치 축제' 지구촌 곳곳에서 개최
- 14 유공 동포 '아프간 콩 박사' 권순영, 아산상 사회봉사상 수상
- 15 주목! 차세대 캐나다 온타리오주 첫 한인 판사 탄생... 혐오범죄 담당 검사 출신
- 16 동포소식 '뉴질랜드 K-팝 현주소' 담은 다큐, 현지 한국영화제서 첫선 외
- 19 동포 캘린더 우즈베크에 한국 '보존과학' 전수... 현지서 관련 기술 활용 유물전 외
- 20 지구촌 통신원 1 한국이 짓는 페루 마추픽추 관문 '친체로 공항' 첫 삽
- 21 지구촌 통신원 2 브라질서 선보인 막걸리 칵테일 "따뽕"
- 22 OKF 뉴스 재외동포재단, '쿠바이민 100주년 세미나' 서 후순 정체성 논의 외
- 24 유관단체 소식 코이카에 '대통령 표창' 30년 국제개발협력 공로 인정 외
- 25 기고문 이주 100주년을 맞아 쿠바의 한인들을 생각한다
신승철 한·중남미협회 회장
- 26 재단공지 재외동포 민원 신고 활용하세요



발행인: 김성근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405호, 406호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조사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미주 지역 동포사회에 사업 알리고 현황 청취

교육문화센터 건립 · 세계한상대회 해외 개최 · 차세대 육성 홍보

재외동포재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동포사회 현장 방문을 다시 재개해 지난 11월 7일부터 2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동포사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현황을 청취하고 협력을 모색했다.

한상대회 해외 개최 · 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참여 홍보

11월 14일 미국 애틀랜타의 한인타운 식당에서 한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세계한상대회’의 해외 개최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도 무역규모가 1조 달러의 선진국이 됐을 정도로 경제규모가 커졌기에 이제 해외에서 세계한상대회를 개최 할 때가 됐다”며 “2023년 대회 장소를 결정하는데 오는 11월부터 장소 공모에 들어간다”고 소개했다.

김 이사장은 미국에서 개최할 여건이 되는지, 의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각 지역을 돌며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재단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는 우리 정부가 재외동포들을 위해 처음 짓는 시설이다.

김 이사장은 재외동포 차세대 자녀들의 정체성을 살리는 교육문화시설이자 동포들의 휴식터로 하자는 것이 건물 활동 목적이라면서, 이 시설을 짓는 데 재외동포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재단은 11월 17일 뉴욕한인회관에서 미 동북부 지역 현직 한인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재외동포재단은 11월 17일 뉴욕한인회관에서 미 동북부 지역 현직 한인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재외동포재단 사업인 ‘차세대 모국 방문 프로그램’,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상대회’ 등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갈등 상황 속에 있는 미주 한인사회의 단합과 관련해,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미주한인회장협의회를 언급하며, 미주 한인사회 대표 단체를 통해 동포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과 현직 한인회장들의 대표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중국적, 입양아 시민권 법안(H.R.1953) 등 미주한인사회 내 주요 이슈들에 대해 한인회장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현지 동포사회의 투표권 행사를 통한 정치력 신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1월 20일에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소재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총회장 김선미)와 간담회를 열었다.

김 이사장은 “재미한국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격려하며, 차세대 정체성 강화와 동포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과 활용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앞서 11월 14일에는 애틀랜타한인회 주최 김치축제에도 참여했다. **창**

미주동포들에게 고(告)합니다

제2의 독립운동 · 차세대 육성 강조

김성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저는 이번에 미국 주요 도시를 방문하며 미주 250만 동포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미주동포들이 주축이 되어 제2의 독립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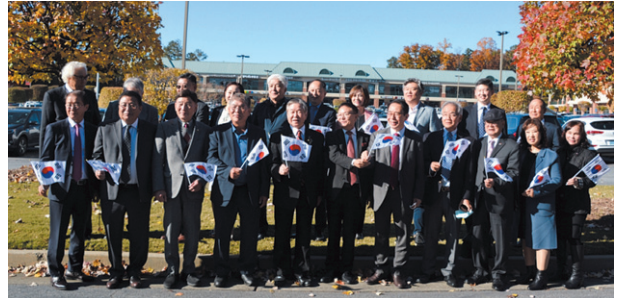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 초창기 미주동포들이 피땀 흘려 전개한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이 온전히 하나 되는 독립이었지, 지금처럼 좌우, 남북으로 갈라진 분열된 코리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론 1948년 남북이 각각의 정부를 세웠지만, 이는 절반의 독립이지 온전한 독립은 아닙니다. 평화통일을 이루어 한민족이 온전히 하나 될 때만 우리의 독립은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한반도 평화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미국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미주동포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계신 미주동포들이 한민족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소위 'K Spirit')으로 제2의 독립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은 오늘날 유엔이 주장하는 지구시민정신(Global Citizenship)과 통하는 것으로서 이제 모든 인류가 한 형제로서 지구촌 평화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일해야 하며, 우리 한민족이 그 선두에 서야 합니다.

저는 이번 미국 방문 시 미주동포들에게 태극기 한 장씩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모국 대한민국을 잊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태극기에 담겨있는 평화의 정신을 살려주시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태극기가 담고 있는 '태극'은 동양 최고의 경전 '주역'에 바탕한 것으로서 동양철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즉 세상 만물은 서로 반대되는 음과 양이, 그 세력을 서로 견제·보완하여, 다이내믹한 균형을 이룬다는 철학입니다.

앞서 말한 제2의 독립운동도 바로 이 태극의 정신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즉 한국사회의 좌파와 우파, 그리고 남과 북의 상극적 관계를 음양 상생의 관계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 수기(음)와 화기(양)가 조화될 때 건강하듯이, 좌와 우, 즉 평등과 자유의 가치가 조화될 때 한민족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남북이 상생으로 교류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딱 막혀 있으면 결국 우리 한민족공동체 전체가 병들게 됩니다. 현재 남북 간의 딱 막힌 기운을 미주동포들이 태극기의 정신으로 풀어 주셔야 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11월 7~22일 미주지역 동포사회 곳곳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재단은 참석자들에게 태극기를 배포했다.

미주동포들한테 몇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첫째 차세대들의 정체성 교육에 힘써 주십시오. 현재 미주 이민사회의 주축이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미국에서 보석과 같은 젊은 한인 2세대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 차세대를 우리가 잘 교육하지 않으면 언젠가 미국에는 코리안 아메리칸은 없어지고 그냥 아메리칸만 남을 수 있습니다. 저희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지금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3년 안에 전 세계 한인 청소년들을 매년 1만 명씩 모국연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 재단 혼자서 할 수 없으며 해외 한인동포들이 도와 주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2만 명 가까운 미국 내 무국적 한인입양동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해외로 입양 간 아이들이 17만 명이 넘는데 상당수가 미국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결함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동포들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위기에 있습니다. 이들을 구제할 '입양인 시민권법' (ACA)이 미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캠페인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미주총연'의 정상화입니다. 총연과 관련된 단체들이 이제 서로 과거를 불문하고 무(無)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재외동포재단은 현직 한인회장,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각종 한인단체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미국 한인동포의 역사적 책임을 의식하여 동포사회의 리더 역할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포사회 대선 참여 운동 활발... “재외동포 결집된 힘 보여줘야”

세계한인회총연합회 · 재외유권자연대 등 ‘50만 명 참여’ 캠페인

중 앙선거관리선관위(이하 선관위)는 내년 1월 8일까지 대선 참여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변경) 신청을 받고, 1월 19~28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재외 투표는 2월 23~28일 실시된다. 투표지는 국내로 보내져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표된다.

재외국민이 대선에 참여한 것은 2012년부터다. 2012년 대선에선 해외에서 22만2천여 명이 등록을 했고 총 15만8천여 명이 실제 투표를 했는데 등록자 중 재외국민은 4만3천여 명, 국외부재자는 18만여 명이었다.

2017년 대선엔 해외에서는 총 30만여 명이 등록을 했고 이중 총 22만1천여 명이 실제 투표를 했다. 등록자 중 재외국민은 5만여 명, 국외부재자는 24만8천여 명이었다.

선관위는 세계 178개 재외공관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재외선거 관리에 돌입했다. 그러나 주재국 정세가 불안한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 등 3개 공관과 최근 신설돼 관리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호주 브

리즈번 출장소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4월 8일까지 운영된다. 재외투표소 운영을 비롯해 투표 관리, 선거범죄 예방·단속, 선거관리 사무 감독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이 추천한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재외 투표 50만 명 참여 캠페인

지난 10월 창립한 세계한인회총연합회(‘세한총연’·회장 심상만)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재외동포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대선 투표 재외동포 50만 명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재외선거인 215만 명(추정) 가운데 29만 4천 명이 등록해 22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재외선거인 대비 10% 정도의 투표율로 저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선거 신규등록자 수는 12월 19일 기준 8만5천여 명이다. 선관위는 2022년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유권자 수를 214만9천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 재외선거인수 대비 등록률이 4%에 불과해 부진한 상황이다. 선관위는 등록 마감일이 가까워지면 등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얼마나 참여할지 지금으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세한총연은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장을 비롯해 주요 지역 한인회장으로 구성된 '선거 참여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각국 한인회와 함께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1차 캠페인은 '재외선거 등록'에 초점을 맞춰 슬로건을 '나의 소중한 한표가 우리의 힘! 선거 등록이 그 첫걸음입니다'로 정해 펼치고 있고, 2차는 '투표 참여'에 맞출 계획이다. 캠페인은 사이트(www.waka2021.org)를 통해 전개한다. 이 공간에서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자료를 지원한다.

심상민 세한총연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각자의 지역에서 선거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이번에는 꼭 재외동포의 결집한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세한총연은 전 세계 한인회를 대표하는 단체다. 각국 한인들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모국과의 각종 협력 활동을 확대해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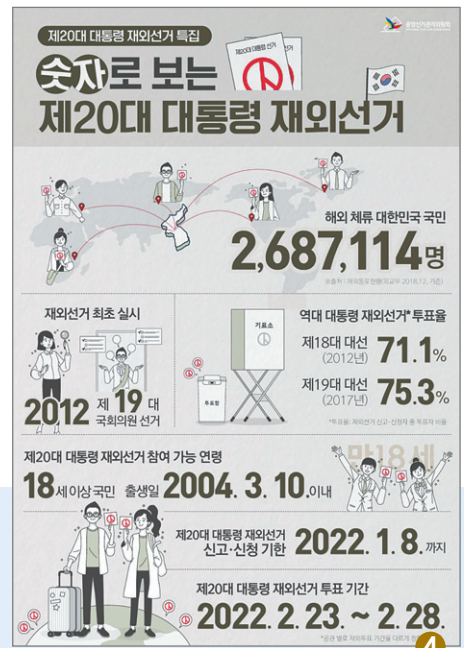
유권자 연대 등 선거 참여 운동

재외 선거에서 투표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유권자들의 자발적 모임이 늘고 있다. 지난 9월에 출범한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특정정당의 구분 없이 재외국민들의 투표참여를 통한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도 이를 위해 세계한인민주회의는 물론 지역 한인회등과의 연대를 통해 재외국민들의 투표참여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재중유권자연대(의장 서원기)는 11월 28일 온라인으로 출범식을 갖고 중국 내 한국인들의 선거 참여 제고를 위한 자발적 연대 활동을 시작했다.

서원기 의장은 "재중국 한국인들의 삶에 한국 정부가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계기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자는 취지로, 전국 규모로 연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재외선거인 가운데 중국 내 재외국민은 30여만 명에 달한다.

재호주재외국민유권자연대(공동대표 백승국, 형주백)도 지난 11월 30일 호주 시드니 스트라스필드 소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백승국 공동대표는 "시드니한인회를 비롯한 호주 전역의 10개 한인회, 재호주대한체육회를 비롯한 7개 한인단체, 6개 향우회가 호주 재외국민유권자연대와 함께 재외선거 홍보 및 투표율 제고 활동에 적극 협력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달라스 한인회(회장 유석찬)와 달라스영사출장소(소장 홍성래)가 12월 9일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명 등록운동'을 한인이 많이 찾는 북텍사스 루이스빌시의 시온마켓 앞에서 실시했다. 내년 3월9일 치러질 대통령선거에 재외동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운동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한인 최대 거주지인 LA의 한인회도 재외국민 선거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인회는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 하면서, 범 미주한인사회의 참여를 독려하는 연대 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

1. 미국 달라스한인회가 12월9일 세 번째로 실시한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명 등록운동'.
2. 재외국민유권자연대가 지난 9월 실시한 '국회는 우편투표 응답하라' 인증샷 릴레이 캠페인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1월 8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변경) 신청을 받고, 투표는 2월 23~28일 실시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숫자로 보는 20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임기 말 로드맵 발표, “6개월 마무리에 최선”

이기를 6개월 남짓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기 말이면 권력 누수로 어려움을 겪었던 역대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막판까지 국정에 전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10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출연, “매일매일이 위기관리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6개월은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비롯한 방역, 부동산과 일자리를 포함한 민생경제, 포스트 코로나 등 분야별 임기 말 국정 로드맵을 비교적 소상히 내놴다.

공개홀 현장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204명의 국민 패널이 마스크를 쓴 채 자리했고, 백신 미접종자 등 100명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국무위원 중 예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에 나왔고, 나머지 방역·민생경제 분야 장관들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행사 시작 전에는 코로나 극복 및 일상회복과 관련한 영상이, 중간에는 코로나 시대에 달라진 삶을 살게 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관한 영상이 차례로 상영됐다.

각본 없이 100분간 국민소통, 단계적 일상회복에 자신감

2019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코로나19 방역 분야였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



후 이날까지 닷새 연속 일일 확진자 수가 3천 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답변에 더욱 눈길이 쏠렸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갈 때 (일일 확진자 수가) 1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했다”고 말했다. 방역에 취약한 국민이 빠르게 추가 접종을 받도록 하며 접종 효과를 높이면 단계적 일상회복도 성공하리라는 자신감이 읽히는 대목이었다.

문 대통령은 추가 접종 기간 단축, 효과 검증을 전제로 한 백신접종 연령 하향, 내년 2월까지 해외 업체의 먹는 치료제 도입과 같은 향후 계획도 설명했다. 다만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 병상이 빠듯해지는 것이 염려된다”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방역 수칙은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의료원 확충이나 코로나 유사 증세 시 진료와 관련한 질문이 나왔을 때 현장에 있는 권덕철 장관이나 화상으로 참여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세부 답변을 요청하기도 했다.



부동산, '하락 안정세' 목표 제시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차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점을 묻는 말에 “무주택자,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드리지 못하고 서민에게 박탈감을 준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었던 올해 2·4 대책을 언급하면서 “주택 공급에 더 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여태까지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투기 세력을 지목했던 점을 고려하면 정책 반성의 내용도 다소 결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까지는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겠다”며 임기가 반년밖에 남지 않았으나 집값의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정책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를 두고도 “코로나로 줄어들었던 고용이 지난 달까지 99.9% 회복됐지만,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호소에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제도처럼 점포에도 그런 방안을 구상해 임대료가 내려가게 하겠다”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임대료를 깎아줄 때 세제상 지원을 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 같은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넘어 G10 구상, 한국 위상에 '자부심' 당부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방, 문화, 보건·의료, 방역, 외교 모든 면에서 톱10의 나라가 됐다”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당당하게 생각해달라”면서 자부심을 갖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세계가 하는 객관적 평가”라며 “이런 자부심이 우리가 미래에 발전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



1.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 '국민과의 대화'는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를 주제로 100분간 진행됐다.
3. 전국 각지의 온라인 국민 패널들의 모습이 공개홀 무대 뒤편 대형 화면에 띄워졌다.
4.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운데)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최도선 아르헨 피보디 대표, 입지전적 스토리로 현지서 주목 빈민촌 살던 이민자 소년, 가전기업 대표로 성공

아르헨티나 가전기업 '피보디'(Peabody)의 최도선(56·단테 최) 대표에게 1983년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다. 그해 아르헨티나 군부가 몰러나고 라울 알폰신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 부에노스아이레스 빈민촌에서 미등록 이민자로 살던 18세의 최 대표는 합법 체류자격 취득을 호소하는 손편지를 들고 대통령궁으로 갔다. 반신반의하며 편지를 건네고 돌아온 지 사흘 만에 대통령의 답장을 받았고, 얼마 뒤 꿈에 그리던 영주권을 얻게 됐다. 이민 온 지 6년 만의 일이었다.

최 대표가 가족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건너온 것은 12살 때인 1977년이었다. 군부 쿠데타 이듬해였던 당시 아르헨티나에선 이민 행정도 거의 마비되었다. 한국서 신청한 비자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새 출발이 간절했던 최 대표의 부친은 '파라과이를 거쳐 들어가면 방법이 생긴다더라'는 말을 듣고 무작정 빈손으로 이민을 떠났다.

관광비자로 일단 입국했지만 딱히 방법은 없었고, 가족은 6년 넘게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영주권을 손에 넣은 후 그는 뒤늦게 학교에 들어갔다. 그 무렵 현지에 진출한 대우실업에서 일도 시작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대학 공부는 다 마치지 못했지만, 3개월 번역 아르바이트로 들어갔던 대우에선 15년을 보냈다.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대우 부도 등을 겪으며 1998년 회사에서 나온 그는 이후 직접 사업을 시작했다. 2001년 아르헨티나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 안팎의 위기 속에 실패의 경험이 쌓여갔다. 2011년에도 투자 실패로 모든 걸 잃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

넘어졌다 일어나길 반복해 현재 피보디는 직원 240명에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에도 진출한 어엿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백색가전과 냉난방기구, 주방가전 등을 생산하는데 가격 경쟁력보다 디자인과 품질에 집중함으로써 피보디의 제품은 시장에서 확실한 이미지를 구축했다. 최근엔 물을 끓여주는 스마트 보온병을 출시해 주목을 받았다.

최 대표는 "나는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한 사람"이라며 "언제나 성실하게, 최선·최상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동포 한지작가 정미호, 서울서 전시회 '자연과 함께' 개최 37년간 한지 작가로 활동... 미국 대통령상(봉사 부문 금상) 수상

전 필라델피아 한인회장인 재미동포 한지 작가 정미호 화백이 12월 1~14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갤러리 XR에서 '자연과 함께'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가졌다.

정 화백은 한지 작가 1세대 고암 이응로 화백, 2세대 이항성 화백의 맥을 이어 자신의 내면세계를 종이에 담아 작품으로 승화하고 있다. 한지에 풀을 먹여 치댄 뒤 한지를 바르고 말리는 일련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자연을 그려낸다.

정 화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뷰에서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 30점의 작품 속 꽃과 나무 등 자연은 지난 50여 년간 미국 이민 생활에 버팀목이 된 소중한 존재



이기에 마치 고통스러운 과정 끝에 피어나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지 자체의 미학을 이렇게 표현한다. “여러 번 덧칠해진 한지는 연약하고 부드러웠던 최초의 한 장과는 달리 동물의 가죽처럼 질겨지고, 단단해진 표면은 물을 뿌려도 끄떡 없게 된다. 종이는 질겨졌지만, 그 위에 원색의 강렬한 꽃과 나무가 새롭게 피어난다.”

37년간 한지 작가로 활동한 정 화백은 미국은 물론 여러 나라에서 한지 작품을 전시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렸다.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성장한 그는 대학 3학년 때인 1971년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갔다. 두 차례에 걸쳐 필라델피아 한인회장을 맡아 한인회관을 건립했고,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문화예술위원장과 부회장, 뉴욕미술협회 회장, 민주평통 필라델피아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

지난 7월에는 20년 이상 미국 주류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여러 단체 활동을 하면서 사회봉사를 한 공로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봉사상 금상을 받았다. 이민 생활 50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재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화합을 위해 힘쓴 노고를 인정받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감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뉴질랜드 의회에 올려퍼진 한국어, 번역 기도문 낭독 멜리사 리 의원, “양국 커뮤니티에 귀중한 유산될 것”

“저희 의원들이 국회의 일을 함에 있어 뉴질랜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현명하고 정 의롭고 자비로우며 겸손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뉴질랜드 국회에 사상 처음으로 한국어 기도가 차분하게 올려 퍼졌다.

뉴질랜드 국회 TV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민당의 한인 멜리사 리 의원은 11월 25일 본회의를 시작할 때 통상 국회의장이 읽는 국회 기도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낭독했다.

뉴질랜드에서는 지역 내 원주민을 위한 특정의 ‘언어 주간’을 두고 있는데, 이런 언어 주간을 두고 있는 있는 통가, 투발루, 니우에 등의 언어로 국회 기도문이 낭독된 적은 있으나 언어 주간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인 한국어로 낭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 의원은 “이번 한국어 기도문 낭독은 트레버 맬러드 국회의장에게 제의해 성사됐다”며 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북아시아 의원 친선협회 공동의장이기도 한 5선의 리 의원은 “원래 10월 9일 한글날 주간에 하는 것으로 추진됐으나 뉴질랜드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계 의원으로 뉴질랜드 국회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어를 사용하는 기록을 꼭 남기고 싶었다”며 “이번 기도문 낭독이 양국 커뮤니티에도 귀중한 유산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상진 주뉴질랜드대사는 “뉴질랜드에 모범적으로 자리 잡은 한인사회에 대한 인식과 동포사회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뉴질랜드인들의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보급과 한국 문화 알리기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에서는 2021년 현재 36개 초·중·고교에서 5천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창**



김치 세계화에 앞장서는 '김치 축제' 지구촌 곳곳에서 개최

김치 담그는 시연 및 체험, 김치와 어울리는 한국음식 시식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열풍과 함께 K-푸드가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이다. 이날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 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김치에 들어가는 소재 하나(1) 하나(1)가 모여 스물두 가지(22) 이상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11월 22일이라는 날짜에 담았다.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치는 2001년 세계 식품규격위원회에서 국제규격이 채택됐고, 2006년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됐다. 가족과 이웃이 서로 정을 나누는 가치를 인정받은 김장문화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김치의 날'을 맞아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독일, 일본 등 지구촌 곳곳에서 다양한 '김치 축제'(Kimchi Festival)가 열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김장하는 날, '양념이 퍼펙트'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제정한 제1회 '김치의 날'을 맞아 LA시(市) 당국자, 정치권과 경제계 인사, LA 주재 외교 사절 등 200여 명이 주 LA 총영사관 관저에 모여 김치를 직접 담그며 한국의 김장 문화를 체험하는 '한국 김치 페스티벌'이 열렸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8월 한국 기념일을 그대로 따와 '김치의 날'을 선포했다.



행사장에는 테이블마다 두 쪽의 절인 배추와 한국에서 공수해 온 김치소가 놓였다. '아이 러브 김치'를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은 참석자들은 각자의 테이블로 돌아가 절인 배추 구석구석에 먹음직스러운 양념을 정성껏 발랐다.

딸과 함께 참석한 LA 경찰국(LAPD) 소속 래리 커빙턴은 자신이 버무린 김치가 어떨지 무척 기대된다며 즉석에서 맛을 봤고 "양념이 완벽하다"고 활짝 웃었다. 커빙턴은 이어 김치를 둘둘 말아 딸의 입에 쑥 넣어줬고 딸은 "정말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들었다. 한국의 김장하는 날을 떠오르게 하는 정겨운 풍경이었다.

한인타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다른 참석자는 "한국에 가본 적이 있지

만, 김치를 직접 만든 것은 처음"이라며 "이제야 한국에 대한 나의 경험이 완성되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치 담그기 체험에 앞서 참석자들은 김치전과 수육, 막걸리 등 한국 음식을 맛보는 시간도 가졌다. 김치전 한 접시에 막걸리 한 잔을 쭉 들이킨 참석자들은 맛있다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한국의 김치 맛을 알리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 이날 행사를 찾은 김치 업체 관계자들은 김치 수출 확대와 한식 세계화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루시드키친 강지영 대표는 "김치가 언제 어디서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미솔 식품 김원재 이사는 "'오징어 게임' 등 한류의 인기와 더불어 김치 수출 전망도 더 밝아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3

한편 지난 11월 20일 미국 '미시건 김치 나눔축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김치 나눔축제', 베트남 '호치민 김치 나눔 평화 한마당', 필리핀 '김치 나눔축제', 호주 '캔버라 김치 나눔축제' 등이 개최됐다. 이어 11월 22일 캐나다 '밴쿠버 김치 나눔축제', 11월 24일 일본 'K-FOOD 사랑의 나눔 김치축제' 등이 열렸다.

멕시코도 흥릴 김치, 타코·타말과 환상적 만남

주멕시코 한국문화원이 11월 29일 멕시코시티의 요리학교에서 연 '김치 대축제' 요리 경연대회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14명의 참가자가 김치에 멕시코의 재료와 조리법을 접목한 창의적인 퓨전 요리들을 선보였다.

토르티야 위에 고추장을 바르고 다진 김치와 고기, 고수를 얹은 김치 타코, 김치를 섞은 옥수수 반죽으로 만든 멕시코 전

통 음식 타말, 아보카도 안에 김치를 넣은 롤 등 눈부터 즐거운 요리들이 등장했다. 이날 1등은 요리 전공 대학생인 호르헤 에두아르도 셸리오가 차지했다. 셸 리오는 옥수수가루 반죽을 부풀린 빵 안에 김치와 멕시코 고기 요리 비리아를 섞어 채워 넣었다. 하얀 접시 위에 파란 옥수수, 빨간 김치, 검은깨까지 태극기 색깔의 재료를 활용하며 한국과 멕시코 두 나라의 문화를 한 접시 위에 담아냈다.

요리대회가 끝난 후엔 현지인들이 다 함께 김치를 담그는 김장 행사도 마련됐다. 계량해둔 양념 재료를 섞고 무채를 써는 것부터 처음엔 우왕좌왕이었지만, 마지막엔 다들 제법 그럴듯해 보이는 포기김치를 완성해 한 통씩 집으로 가져갔다.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을 포함해 올림픽 메달을 3개나 딴 멕시코 태권도 선수 마리아 에스 피노사는 "선수 시절 여러 번 한국에 가서 먹었던 김치를 매우 좋아한다"며 "직접 만들어 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즐거워했다.

이에 앞서 김치와 전통주가 어울린 한국음식 페스티벌이 11월 13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렸다. 브라질 한국문화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김치의 날'을 앞두고 브라질 국민에게 김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성을 알린다는 취지로 세계김치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문화원 내 전시관에 설치된 화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김치와 김장 문화, 김치의 역사와 효능 등에 관한 정보가 흘러나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밖에 키르기스스탄한인회와 주키르기스스탄한국대사관이 주관하는 '김치축제 및 전통주 시음행사'가 지난 10월 30일 비슈케크 소재 알라투 극장 옆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김치 만들기 체험행사가 진행됐고, 김치와 어울리는 한국음식을 맛보는 기회도 제공됐다. **[참]**



4

1.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제정한 제1회 '김치의 날'을 맞아 11월 22일 LA에서 열린 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절인 배추에 김치소를 버무리고 있다.
2. 캘리포니아주 '김치의 날'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이 김치전을 맛본 뒤 반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춤을 추고 있다.
3. 주멕시코 한국문화원의 '김치 대축제' 요리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김치를 활용해 만든 요리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3. 지구촌 곳곳에서 개최된 '김치 축제' 포스터.

‘아프간 콩 박사’ 권순영 아산상 사회봉사상 수상

아프간 영양실조 · 기아 해소 기여, ‘거버넌스 펀딩’ 요청 계획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상황이 좋지 않지만, 탈레반이 우리가 펼치는 ‘콩 사업’ 만큼은 저지하지 않고 있어 마무리를 잘 지을 것 같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영양과 교육 인터내셔널(NEI)’ 권순영(미국명 스티브 권·74) 대표는 아프가니스탄의 영양실조와 기아 해소를 위해 18년 동안 전개한 콩 재배와 가공 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1월 25일 서울시 송파구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홀에서 열린 ‘제33회 아산상’ 시상식에서 사회봉사상을 받은 권 대표는 인터뷰에서 “탈레반이 장악하면서 많은 비정부기구(NGO)가 아프가니스탄을 떠났지만, NEI는 끝까지 남아 난민들을 돕고 있다”고 전했다.

오랜 내전으로 굶주림과 영양부족에 시달리던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은 호구지책으로 드넓은 땅에 양귀비를 재배해 유럽 등에 수출했다. 하지만 삶은 더 팍팍해지고 기아는 해결되지 않았다. 아이 5명 가운데 1명이 다섯 살도 안 돼 세상을 떠나고, 평균 16살에 결혼해 대체로 6명의 아이를 낳는 엄마 가운데 일부는 출산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권 대표는 2003년 자비를 털어 NEI를 설립했다. 기아와 영양실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단백질 공급원인 콩을 제시하고 현지인들을 설득했다.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해 UC 데이비스와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식품생화학 석·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1986년 세계적 식품회사인 네슬레에 입사해 콩으로 만든 영아용 대체 분유를 비롯해 의료식품 개발을 담당했다. NEI를 세우고 한국과 카불에 사무소를 낸 그는 2008년 회사를 조기 퇴직했고, 아프가니스탄 콩 재배와 가공공장 설립 등에 매진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34개 주 가운데 30개 주가 콩을 심고 있다. 나머지 4개 주는 정부군과 탈레반의 싸움이 치열했던 곳이다. 권 대표는 미군 철수로 사실상 전쟁이 끝났기에 4개 주에서



권순영 대표(중앙)는 콩 경작을 통한 영양 개선 사업을 벌이며 ‘아프간 콩 박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도 곧바로 콩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권 대표는 아프가니스탄의 양귀비밭에 한 번도 재배한 적 없던 콩을 심어 ‘상전벽해’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런 이유로 그에게는 ‘아프가니스탄 콩 박사’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이 영양실조를 스스로 퇴치할 수 있도록 NEI가 돕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콩 종자 개발 및 생산, 콩 재배 확산, 콩 가공공장 건설, 콩 시장 개발 등 ‘콩 가치 사슬’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연간 30만톤의 콩을 생산해 국가 스스로 영양실조를 퇴치하도록 함께 협력하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권 대표는 아프가니스탄의 ‘자조자립형 영양실조 퇴치 모델’을 제3국에 전파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스리랑카, 탄자니아, 필리핀, 인도 등이 NEI에 그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사업기금 마련을 위해 한국과 미국, 유럽 정부에 ‘거버넌스 펀딩’을 요청할 계획이다. 권 대표는 2013년 국민이 직접 추천한 우리 주변의 숨은 공로자로 선정돼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

캐나다 온타리오주 첫 한인 판사 탄생 혐오범죄 담당 검사 출신

토론토 태생 레너드 김씨, 서드베리법원서 근무

토론토가 주도인 인구 1천450만 명의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첫 한인 판사가 나왔다.

캐나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11월 11일 더그 다우니 주 법무부 장관의 최근 발표를 인용해 레너드 김(46) 검사가 온타리오주 북부지역의 중심지 서드베리 법원의 판사로 임명됐다고 전했다. 김 판사의 임명은 온타리오주에서 처음이고, 캐나다 전체에서는 2015년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된 그레이스 최 판사에 이어 두 번째다.


김 판사는 “판사직 합격 전화를 받고 난 뒤 그동안 망고생 한 아내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소감을 밝혔다.

두 살 때 밴쿠버로 이주한 그는 편의점과 길가에서 인종차별을 수없이 당했다. 김 판사는 “검사가 돼 사회 정의를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었다”고 회상하면서 “인종 혐오는 한 인간의 인권과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는 살인 행위다. 다문화사회인 캐나다에선 진작 없어져야 할 사회악”이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1975년 토론토에서 선박 수리 기술자인 아버지와 파독 간호사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오타와대에서 범죄학을 전공한 뒤 윈저대 법대를 졸업했고, 2005년 법조인의 삶을 시작했다.

이후 김 판사는 서드베리 검찰청에서 15년간 음주운전과 혐오범죄 관련 검사로 활동했고, 2014년 서드베리시의 다양성 자문패널 의장으로 서드베리 다양성 정책의 초안을 작성했다.

또한 캐나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재단(KWVCF) 창립이사인 김 판사는 온타리오주 아시아계 캐나다인 변호사연맹 이사로 활동 중이다. 김 판사는 정년인 75세까지 봉직할 수 있는데, 지역 한인 사회에서 ‘저스티스(Justice)가 몸에 밴 검사, 정의와 공정의 원칙을 실천한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드베리한인회 부회장을 역임한 그는 새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첫 한인 판사로 임용된 레너드 김 판사는 지난 2005년 법조계에 입문해 온타리오 지역 음주운전과 혐오범죄 등을 전담하는 검사로 활동했다(위). 서드베리 법원 청사.

‘뉴질랜드 K-팝 현주소’ 담은 다큐, 현지 한국영화제서 첫선

이준섭 감독 ‘뉴질랜드의 K-팝’ ... 6년간 K-팝의 역사와 활동 추적

뉴질랜드 동포 이준섭 감독의 다큐 ‘뉴질랜드의 K-팝’이 12월 3일과 4일 웰링턴 시내 엠버시 시어터에서 열린 ‘2021 뉴질랜드 한국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였다.

29분 분량의 다큐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6년 동안 뉴질랜드 주요 도시에서 열렸던 K-팝 행사와 현지 팬들의 활동 등을 담았다. 이 감독은

전화 통화에서 “100여 명의 커버댄스 그룹과 전문가, 온라인 동호회 운영진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뉴질랜드의 K-팝 역사와 팬들의 규모, 활동 등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에서 K-팝 마니아 그룹은 아시아인과 태평양 연안 섬나라 출신 등 소수민족계 젊은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한 경험이 있어 K-팝의 한국어



언론인 겸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이준섭 감독의 다큐멘터리 ‘뉴질랜드의 K-팝’의 한 장면.

가사를 받아들이는데 비교적 개방적이라고 한다. K-팝 팬들은 온라인을 통해 활동하거나 대학동아리 등에서 커버댄스 그룹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경연을 위해 오디션을 개최하고, 오랜 시간 훈련하는 과정이 한국의 대형 연예기획사가 연습생을 선발하고 연습시키는 과정을 연상시킬 정도로 조직적이다.

현지 K-팝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인 피네 씨는 “이번 영상은 뉴질랜드 K-팝의 역사를 기록한 첫 번째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인 겸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이 감독은 2018년부터 1년에 한 편씩 한국인과 문화를 뉴질랜드에 소개하는 단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아프리카 관문 남아공서 한국문화원 개원

사하라 이남서 두 번째 문화원... 전통과 첨단 조화 첫 공연 ‘갈채’

주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문화원이 남아공 행정수도 프리토리아에서 11월 24일 공식 개원했다.

국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주남아공 한국문화원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문화원은 100여 명을 수용하는 공연장과 함께 3개의 전시실, K팝과 태권도 연습실, 전통 한옥 체험실, 도서관, 한식 조리실, 3개의 강의실,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문화·체험 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췄다.

개원 행사에는 현지 외교·문화계 인사와 남아공 및 케이프타운 한인회 관계자, 나이지리아의 이진수 한국문화원장까지 모두 100명 정도 참석했다.

돌라니 음식망 남아공 국제협력관계부 아시아·중동 수석국장

은 “문화만큼 상대 국가를 제대로 이해하게 만드는 창구가 없다”



남아공 수도 프리토리아에 새로 문을 연 한국문화원 개원 축하 미디어 아트 공연 ‘디지털과 야광 하회 탈춤’.

고 개원을 축하했다.

박철주 주남아공 한국 대사는 “김구 선생의 문화 강국 비전이 오늘날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천정범 남아공 초대 한국문화원장은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문화교류의 장이 될 이곳에 전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외 한국에서 공수한 로봇들이 현관에서 손님들을 맞고 공연 사회자가 된 가운데 ‘전통과 첨단기술의 공존’이란 주제로 다양한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전통 갖을 쓴 아티스트들이 디지털 배경에 댄스를 조화해 펼친 ‘오방신장무’ 미디어 퍼포먼스는 열렬한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국 현대미술 전시회도 열렸다.

특히 남아공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상설 코너는 양국의 오랜 우호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고미니 작가, 어머니 삶 기록한 영어 동화책 출간

하와이 고송문화재단 이사장의 인생 여정 '무지개 찾아 떠나는 여행'

어머니의 인생 여정을 딸이 영어로 쓴 동화책 '무지개 찾아 떠나는 여행'(The Journey For Rainbows)이 국내에서 출간됐다. 책에 삽입된 그림은 어머니가 직접 그렸다.

화가인 고서숙 미국 하와이 고송문화재단 이사장의 70 평생 이야기를 딸 고미니 작가가 동화로 엮은 것이다. 출판기념회는 지난 11월 27일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내 나이로비 커피 비스트로에서 열렸고, 한국어로도 번역 출간될 예정이다.

고서숙 이사장은 지난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한국과 한인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고 이사장은 "이번에 나온 책은 한 사람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이자, 새로운 장소



고서숙 화가는 11월 송도 컨벤시아에서 70 평생 이야기를 담은 '무지개 찾아 떠나는 여행'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로 이동하는 것이 희망과 꿈, 기회들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내용을 담았다"며 "아이에게든 어른에게든 이주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그림과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영감을 받고, 스스로 멋진 사람임을 기억하며, 항상 자신을 믿고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하와이에서 식당, 보석 도매상, 인터내셔널마켓 등을 운영하며 자리를 잡았다. 현지 웨라톤 호텔에 3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부를 쌓았다. 남편과 함께 번 돈을 한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남편(고)과 자신(송)의 성을 따 재단을 설립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태어난 딸 미니 씨는 하와이대에서 한국어와 문학을 공부했다.

일본 조선학교 후원 '몽당연필' 창립 10년 콘서트

권해효 사회로 강산에 · 박애리 · 팝핀현준 출연

일본 내 민족학교인 조선학교를 후원하는 시민단체인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대표 권해효, 이하 몽당연필)이 12월 2일 오후 7시 온라인에서 창립 10주년 콘서트를 개최했다.

배우 권해효, 가수 안치환 · 이지상은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 발생 후 피해를 본 조선학교를 도우려고 '몽당연필'을 결성했다. 당시 12차례 토크 콘서트와 6차례 콘서트를 열었고, 이후 재일동포 사회와 계속 교류하면서 조선학교 돕기를 이어오고 있다.

'소풍 콘서트, 가슴 펴고 걸어갈래요'로 이름 붙인 10주년 콘서트는 권해효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콘서트에는 강산에, 이한철 밴드, 부부인 박애리 · 팝핀현준, 버둥, 손병희, 이정열을 비롯해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 대금 연주자 한충은, 목관 악기의 하나인 장새납



콘서트 사회를 본 권해효 '몽당연필' 대표.

연주자 고큐우, 몽당연필 밴드(정은주, 조성우, 신희준, 박우진, 송기정), 몽당연필 노래 소모임 '가그린'이 출연해 재일동포들이 오랜 시간 즐겨 불러왔던 노래들을 편곡해 불렀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유도 국가대표 안창림 선수가 특별 초청돼 조선학교와 몽당연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콘서트는 조선학교 학생과 재일동포들이 불러왔던 노래를 새롭게 편곡하고 작곡해 만든 '몽당연필 10주년 기념 음반' 발표회도 겸했다. 음반은 콘서트 직후 몽당연필 회원에게 공개됐고, 음

원 사이트에도 등록해 일반 시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권해효 대표는 "무대에서 부르게 될 재일동포의 노래를 통해 한국의 많은 분이 조선학교를 지켜온 동포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한한령’에 막혔던 한국영화 중국서 6년 만에 개봉

‘오! 문희’ 상영... 2015년 ‘암살’ 이후 중국내 첫 한국영화 개봉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 이후 중국 본토 개봉관에서 자취를 감췄던 한국 영화가 6년 만에 중국에서 정식 개봉됐다.

12월 3일 중국 전역에서 개봉된 나문희, 이희준 주연의 한국 영화 ‘오! 문희’는 중국영화그룹이 수입해 차이나필름이 배급했고, 지난 11월 30일 중국 국가영화국의 심의를 통과했다. 정세교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오! 문희’는 농촌을 배경으로 한 코믹 수사극 형식의 가족 드라마로 작년 9월 국내에서 개봉해 35만여 명의 관객을 모았다.

한국 영화가 중국 본토에서 정식 개봉하기는 2015년 9월 전지현, 이정재 등이 주연한 ‘암살’(감독 최동훈)이 상영된 이후 6년여 만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



중국 베이징 한 극장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 이후 6년 만에 개봉한 한국 영화 ‘오! 문희’ 포스터가 걸려 있다.

군의 사드 배치에 합의한 이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발동되면서 중국 본토에서 한국 영화는 정식개봉되지 못했고, 한·중 영화 합작도 중단됐다.

한·중 간 외교 교섭을 거쳐 2017년 10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3불’(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한·미·일 군사동맹화 등을 부정) 언

급을 하면서 중국의 한한령도 중단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한국 영화의 중국 시장 진출은 그 후로도 4년여 이뤄지지 못했다.

작년 12월 중국에서 한국 업체의 한 모바일 게임 서비스 허가가 난데 이어 한국 영화가 오랜만에 개봉되자,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한령이 실질적으로 해제되는 신호탄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세대 사할린 동포·가족 91명 정부 지원으로 영주 귀국

사할린동포법 시행 따라 260명 순차 입국

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다가 광복 후에도 귀환하지 못했던 동포와 그들의 가족 260명이 정부 지원으로 영주 귀국했다.

1세대 사할린 동포 21명과 동반 가족 등 91명이 사할린발 항공편으로 11월 27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공항에서 외교부가 마련한 간단한 환영식을 마친 뒤 격리장소로 이동했다.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와 가족들은 열흘 간 시설 격리를 거친 뒤 안산·인천 등에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했다.

이날 귀국하지 못한 동포와 가족 169명은 12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귀국했다. 1세대 사할린 동포의 평균연령은 88세이며, 최고령은 1931년생(만 90세)이다.

이번 영주 귀국 및 정착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할



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던 1세대 사할린 동포와 동반 가족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환영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린동포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들의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은 정부가 지원한다.

이전에는 사할린동포 본인과 배우자, 장애 자녀만 지원했지만 법 시행을 통해 지원 대상이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사할린 동포 23명과 동반가족 327명 등 총 350명이 지원 대

상자로 선정됐고, 불가피한 사유로 입국이 어려운 인원을 제외하고 337명에 대한 지원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일부 동포 1세대는 기존 귀국 사업에 따라 이미 입국했으며, 이들은 자녀가 영주귀국 대상자에 새로 포함돼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된 사례다.

대한적십자사도 이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캠프를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



우즈베크에 한국 '보존과학' 전수... 현지서 관련 기술 활용 유물전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단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공적개발원조(ODA) 1차 사업 성과를 담은 '한국·우즈베키스탄 보존과학 기념 전시'를 11월 27일 우즈베키스탄 동부 고도(古都) 사마르칸트 역사문화박물관에서 개막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전시에는 한국 보존처리 전문가로부터 배운 기술로 보존처리를 마친 금속 문화재·도자기 등 유물 94점이 공개됐다. 콜도르테파는 고대 한반도와 중앙아시아 간 문화 교류를 보여주는 유적으로, 러시아 예르미타시(에르미타주) 박물관과 사마르칸트 박물관이 1950년대에 일부 지역을 시굴 조사했다.



GKL사회공헌재단, 고려인·사할린 동포 위한 역사문화여행 진행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익법인 GKL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덕형)은 국내 거주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의 정착과 정체성 함양을 돕고자 역사문화체험 초청 여행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여행 테라피'라는 이름의 행사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큰 족적을 남긴 이들 후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동포 포함 가족을 대상으로 경기, 충청, 강원, 전라, 경상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거주 지역이 아닌 곳에서 역사문화 탐방과 농촌 체험 등을 한다. 참가자는 각 지역의 고려인, 사할린 동포 단체를 통해 매회 20~30명씩 모집해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한다.

주터기한국문화원 '2021 한식 페스티벌' 개최

주터기한국문화원은 11월 6일 앙카라한인회와 공동으로 '2021 한식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가자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해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정원이 찼다. 앙카라 거주 한인들이 현장에서 불고기, 잡채, 김밥, 떡볶이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조리했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온 '달고나'를 선보여 큰 호응을 받았다. 김치 만들기 시연행사에는 예르칸 타르한 터기 문화관광부 예술국 부국장, 알페프 이틸라 터기 무역부 국제협정국 부장 등이 가족과 함께 참여했다.



브라질서 제10회 한국영화제 개최... '자산어보' 등 13편 상영

브라질 한국문화원(원장 김관국)은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파울루 시내 페트라 벨라스 아르치스 영화관에서 제10회 한국영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최신작을 포함해 국내에서 큰 관심과 인기를 끈 작품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드라마 출연 배우 작품 등 모두 13편의 영화가 상영돼 코로나19에 지친 브라질 한류 팬들을 위로했다. 올해 개봉작인 '자산어보' '싱크홀' '인질'을 비롯해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82년생 김지영 '범죄도시' '청년경찰', '오징어 게임' 주연배우인 이정제가 출연한 '관상' 등이 선보였다. 부대행사로 '오징어 게임'에 나온 한국의 전통 놀이인 '딱지치기' '달고나' '구슬치기' 등이 진행됐다.

나이지리아서 한식 요리 교실... '한국인의 집밥' 주제로 오징어볶음 소개

주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원장 이진수)은 11월 24~25일 한식 요리 교실을 진행했다. 지난 8월부터 매달 한식 주간을 지정해 다양한 한국 음식을 알리는 문화원은 '한국인의 집밥'을 주제로 오징어볶음, 계란말이, 미역국 조리법을 소개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현지에서 크게 인기를 끈 것을 계기로 소개한 오징어 요리가 특히 관심을 끌었다. 요리 시연은 문화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됐다. 시청자 중에서 선정된 8명을 아부자 최고 시설의 요리학교인 레드 디쉬 크로니클즈 요리학교 스튜디오로 초청해 한국인의 집밥을 직접 만들어보기도 했다.



남아공 한글학교 첫 대면 졸업식... 교민 족구대회도 개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한글학교(교장 황재길)가 11월 20일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 처음으로 대면 졸업식을 했다. 이날 또 주남아공 한국대사관과 남아공 한인회가 후원하는 교민 족구대회가 열렸다. 요하네스버그 한글학교는 박철주 주남아공대사, 손준권 한인회장, 임창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프리카협의회장 등 외빈을 초청한 가운데 초등 6학년, 중등 3학년 등에게 졸업장을 수여했다. 요하네스버그 한글학교는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부지에 있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에서는 또 프리토리아 교민과 대사관, 코트라(KOTRA), 선교사들 중심의 아바신학교 등 5개팀이 모여 족구를 즐겼다.

한인회·한글학교 등 동포단체 행사를 소개합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소식을 이메일(prc@okf.or.kr)로 보내주세요

한국이 짓는 페루 마추픽추 관문 ‘친체로 공항’ 첫 삽

“페루 40년 꿈 이루는 날”... 2025년 개항 목표

페루 잉카 문명의 고대 유적지 마추픽추로 향하는 관문이 될 친체로 신국제공항 건설사업이 한국 기업의 기술로 첫 삽을 떴다. 한국항공공사가 이끄는 민관협력 컨소시엄 ‘팀코리아’가 지난 11월 19일 페루 남부에 위치한 쿠스코주 정부청사에서 친체로 신국제공항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쿠스코에서 북서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친체로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는 페루 정부가 약 7천60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4km 길이의 활주로와 탑승구 13기의 터미널 1개동, 계류장 13개소를 지어 2025년까지 연간 최대 570만명이 이용하는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상기된 표정으로 연단에 오른 장 폴 베나벤테 쿠스코 주지사는 “오늘은 페루 쿠스코 주민들이 40년 이상 간직해 온 꿈을 이루는 날”이라며 “친체로 공항은 페루 전체의 국가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친체로 신국제공항 건설은 페루 정부가 40여년 전부터 구상한 사업이다. 기존 마추픽추 관문 공항 역할을 하던 아스테테 국제공항은 활주로가 3.4km로 짧은 탓에 큰 비행기가 내리기 어려워 사실상 국내 공항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 또 산악으로 둘러싸인 탓에 사고 위험성이 크고 주변이 주거·상업지역이어서 소음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한국항공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19일 페루 남부에 위치한 쿠스코주 정부청사에서 친체로 신국제공항 건설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우리 기술로 건설하는 친체로 신국제공항 조감도(오른쪽 위).

여러 차례 무산됐던 신공항 사업은 2019년 ‘팀코리아’가 스페인, 캐나다 등을 제치고 최종 사업권을 따냈다. 팀코리아는 페루 정부를 대신해 건설·시공사 선정과 공정 관리, 공항 시운전까지 사업 진행을 총괄하는 사업총괄관리(PMO)를 맡았다. 친체로 신국제공항 사업총괄관리(PMO) 사업 수주는 한국이 인프라 분야 최초로 해외 정부와 맺은 계약이다.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은 산체스 팔로미노 페루 관공통상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에서 “페루 정부는 한국 정부와 우호적인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친체로 공항을 건설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페루 정부는 친체로 공항 건설로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

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안 프란시스코 페루 교통통신부 장관은 “공항 건설로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창출되고, 친체로에 연간 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주민의 삶을 높이면서 국제적으로 관광자원을 확대해 모든 페루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손창완 한국항공공사 사장과 주종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고상훈 코트라 정부간거래관리실장, 김기중 코트라 중남미지역본부장, 조영준 주페루대한민국대사관 대사, PMO 측 도화 엔지니어링 김용구 사장, 해외건설협회 백승선 페루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정**

브라질서 선보인 막걸리 칵테일 “따봉”

전통주 칵테일로 한류 확산…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 확인

브라질에서 한류가 갈수록 인기를 더하면서 우리 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우리 전통주의 맛과 멋을 알리는 '2021 우리 술 칵테일 경연대회'가 지난 11월 14일 상파울루 시내 브라질 한국문화원에서 열렸다.

3회째를 맞은 올해 경연대회에는 전문 바텐더 116명이 참가했으며, 칵테일 퍼포먼스 영상물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예선을 거쳐 9명이 선발됐다. 참가자들은 우리 술을 이용한 다양한 주제의 칵테일을 선보이며 치열하게 경합했다.

참가자들은 한국 문화와 역사, 한·브라질 우호 관계 등에 착안한 화려한 칵테일 쇼를 펼쳐 관람객들의 박수와 환호를 끌어냈다.

1위는 무궁화에서 영감을 얻어 '동방의 꽃'이라는 이름의 칵테일을 선보인 리스 올리베이라 다 시우바가 차지했고, 2위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재해석한 치아구 올리베이라의 '왕의 영혼', 3위는 나뉘의 정신을 표현한 비니시우스 코다마의 '화합'에 돌아갔다. 1·2·3등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상품이 전달됐다.

이번 경연대회는 우리 술의 브라질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에서는 국민주(酒)로 통하는 카샤사로 만드는 칵테일 '카이피리냐'가 대중화돼 있어 우리 술을 이용한 칵테일 레시피를 적극적으로 알리면 수출 판로 개



올해로 3회째를 맞은 '2021 우리 술 칵테일 경연대회'가 11월 14일 브라질 한국문화원에서 열렸다(위). 브라질의 전문 바텐더들은 우리 술을 이용한 다양한 칵테일을 선보였다.

척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탕 수수를 원료로 하는 카샤사는 보통 38~50%의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 있다. 카샤사는 브라질에서 맥주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고, 세계적으로 볼 때 증류주로는 보드카와 소주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을 맡은 서정현 전통주 바텐더는 “경연대회가 거듭되면서 우리 술에 대

한 관심이 커지고 칵테일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느낀다”면서 “우리 술이 브라질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원 행사장 안에는 막걸리·약주·소주·과실주의 유래와 제조과정을 소개하고,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전통주를 안내하는 전시대가 마련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

재외동포재단, '쿠바이민 100주년 세미나' 서 후손 정체성 논의



11월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쿠바이민 100주년 기념 세미나'에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쿠바 한인 후손들이 가진 이중 정체성이 갈등과 소외를 유발하는 쪽이 아닌, 협력과 상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국인 이들을 개방적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월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쿠바이민 10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오삼교 위덕대 교수는 "다중적 정체성을 지닌 쿠바 한인들 '경계에 선 사람' 취급하지 말고, 국가주의나 민족주의 틀을 벗어난 자유로운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행사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과 한·중남미협회(회장 신승철), 한·쿠바문화친선협회(회장 조갑동)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오 교수는 '쿠바 한인 후손과 정체성' 주제의 발표에서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한인 후손의 84%가 한인인면서 쿠바인인 이중 정체성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한류의

확산, 한국인의 쿠바 방문 증가, 독립유공자 서훈 및 후손의 국적 취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국에 대한 친근한 인식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인 후손들에게 한민족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다양한 지원이나 문화적 프로그램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한국과 쿠바의 정체성이 만나 형성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인정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랜 세월 형성된 쿠바 한인 후손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한국화만을 고집하는 접근은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쿠바 한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발표한 김진호 경향신문 국제전문기자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움을 줘야 한다는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수직적 시선보다는 수평적 파트너십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미나에서는 최윤국 전 배재대 교수와 최금자 한국외대 교수가 각각 '쿠바 한글학교 운영과 모국 연계사업', '쿠바 한인사회가 한국 정부의 동포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인 후손 취업 등을 돕는 손지용 미주한인비즈니스플라이휠협회 명예회장은 "한인후손문화회관에 최근 후손들뿐 아니라 현지인의 한국어 강좌 수강 신청이 부쩍 늘었다"며 "강사 등 대응 인력과 재정 등이 모두 부족해 열악한 상황"이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김성곤 이사장은 "쿠바 한인들은 고된 타향살이 속에서도 임금을 모아 모국 독립운동에 힘을 보탰고, 정치·경제적 운동에도 앞장서 거주국의 발전에 이바지했다"며 "문화적 다양성과 보편적 인류애가 함께 녹아있는 100년의 발자취"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UN)이 강조해온 세계시민교육을 바탕으로 한 정체성 확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디지털 아카이브 추진 간담회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12월6일부터 7일까지 제주 서귀포시 소재 재단 회의실에서 재외동포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국내 체류 동포 연구 용역 결과보고회', '재외동포 공고외교

활성화 토론', '재외동포 디지털 아카이브 추진'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했다.

7일 '재외동포 디지털 아카이브 추진' 세션에서 기초발제에 나선 김상열 한국이민사박물관장이 박물관 역사와 소장 유물,



재외동포재단은 12월 7일 제주 서귀포시 재단 회의실에서 '재외동포 디지털 아카이브 추진'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집 방법과 보관 등에 관해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영근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 유동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이진영 영화감독, 강성철 연합뉴스 기자 등이 참석했다.

김 관장은 “한국이민사박물관에는 1만2천여 점의 유물이 있다”며 “이 가운데 재외동포들이 기증한 유물이 71%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인천시와 재동포들이 함께 건립한 국내 최초의 이민사박물관이다. 미주 이민 100주년을 맞아 2003년 건립됐다. 인천시 중구 월미로에 있는 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4천127㎡의 크기로 4개 전시실, 기획전시실, 강당, 수장고 등이 있다.

김 관장은 국내 전문 연구기관과 현지 재외동포 단체와의 공동 조사를 통해 유물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러시아·CIS 지역 유물 수집에는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전러시아고려인협회,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센터와 일본지역은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아연구소와, 중국지역은 인하대 한국학연구소와 협력하고 있다.

이밖에 사할린 이주역사는 영주귀국 동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입양인 역사는 귀환입양인과 위원회를 구성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김 관장은 “비대면 시대에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유물을 소개하고 전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이진영 감독은 하와인 한인 이민역사와 후손들의 이야기를 담아 제작한 다큐멘터리로 ‘무지개 나라의 유산’에 대해 소개했다. **창**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지금 산에 사는 벽려씨 김정묘 / 나무와 숲

시인이자 소설가인 김정묘 작가의 첫 번째 소설집이 나왔다. 1989년 ‘문학과 비평’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한 이래 시집과 산문집 등은 여러 권 나왔지만 소설집은 처음이다. 짧은 소설과 단편소설 등 40편이 실렸다. 이 가운데 작가가 중앙아시아 취재여행에서 만난 고려인의 기억들을 펴낸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갔던 고려인의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이구아나의 겨울’ 작품이 대표적이다.



주인공이 고려인들을 떠올리며 “그 옛날 돌소금만 서걱거리는 황무지에 어쩔 수 없이 그저 구덩이를 파고 들어앉아 아무런 대책 없이 얼어 죽은 고려인들과 60년 뒤에 또다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추방당해 쫓겨 간 연해주로 가는 고려인들”의 삶을 관통하는 아픔을 “열대지방에서 팔려와 추위에 죽은 이구아나의 죽음”과 밀도 있게 연결했다. 작가의 등단작이기도 한 이 소설은 작가의 철학과 위로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세상을 보는 작가의 시선과 철학이, 때로는 슬픔이, 때로는 몸부림이, 때로는 위로가 느껴지는 작품들로 풍성한 책이다.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를 통해 표현된 고려인의 삶과 이야기를 만나보자.

한국문화교육론 이승연, 이유허, 최은지, 이선영 / 하우

언어가 서로 다른 집단은, 각기 영위하고 있는 문화도 다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문화 차이’라는 벽이 가로놓인다. 결국 새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알게 되는 것이다.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책은 문화교육에 관한 논의의 출발인 문화란 무엇이며 어떤 속성을 갖는지 살펴본다. 특히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상호 작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언어 속에서는 문화 고유의 특성들이 언어적 습관으로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간 언어가 다르면 문화 차이라는 벽이 있어 그 속성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최근에는 문화 생태가 변화하고 있다. 바로 미디어, 인터넷 등 기술 산업의 발달로 문화간 차이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화를 이용한 국내의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교육방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모국어를 잊지 않고 배우려는 동포들과 한류의 바람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전 세계인들이 문화를 통해 한국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코이카에 '대통령 표창' 30년 국제개발협력 공로 인정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국무조정실이 주최하는 '2021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단체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단체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은 KOICA의 손혁상 이사장은 "30년간 이어온 개발 협력 공로를 인정받아 기쁘지만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온 게 많았지만, 이제부터는 독자적인 사업을 늘려 후발주자라는 이미지를 벗고 글로벌 개발 협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1991년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KOICA는 출범 당시 174억 원이던 예산이 올해 9천722억 원으로 50배 이상 증가했고, 해외사무소는 6개국에서 44개국으로 늘었다. 초기 인력파견 위주 사업에서 국가별 프로젝트, 해외 봉사단 파견, 글로벌 연수, 인도적 지원, 혁신적 개발협력과 민관협력 등 다양한 공적 개발원조(ODA)를 펼쳐 한국 국제개발 협력의 질적·양적 성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개발 협력을 통해 세계 120여 개 국가와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상생의 국익을 실현한 점도 주요 공적에 포함됐다.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이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서 대통령 표창을 받고 있다.

품앗이운동본부, 한국전쟁 참전용사 방문 '리틀 앰배서더' 선발

사단법인 품앗이운동본부(이사장 이경재)는 한국전쟁 유엔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리틀 앰배서더'(청소년 외교관) 5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진행한 '한국전쟁 유엔 참전용사에게 감사 편지 쓰기' 공모전에 참가해 당선됐다. 올해 행사에는 전국 초·중·고교 학생 4천여 명이 응모했다. 이 가운데 국가보훈처장상인 대상은 초등부 황성연(서울 성내초), 중등부 오재령

(해외 브리티시칼리지오브브라질), 고등부 김가빈(서울 외국인학교) 학생이 받았다.

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받은 초등생 18명, 중학생

19명, 고등학생 13명 등 50명은 내년에 유엔 참전국 가운데 한 나라를 방문해 펼치는 보훈행사 '땡큐 프롬 코리아'에 참여한다. 이 프로그램은 '받은 은혜는 반드시 잊지 않고 돌려준다'는 우리나라의 품앗이 정신을 바탕으로 2001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참전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감사 편지와 함께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우편으로 전달하는 활동을 했다.



'리틀 앰배서더'로 선발된 청소년들.

한국국제교류재단, 미국 프린스턴대에 한국학 기금교수직 설치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프린스턴대에 한국학 기금교수직을 설치한다. 양 기관은 올해부터 매년 각각 50만 달러씩 5년간 적립해 500만 달러 규모로 기금을 조성한 후 한국학 교수를 임용하기로 했다.

프린스턴대에는 2007년 첫 번째 한국학 교수직을 설치해 스티븐정 한국문화·사회학 KF 교수가 임용됐다. 이번이 두 번째로 KF는 기금교수직 확대를 통해 대학 내 한국학 연구·교육 기반 확대를 돕는다. KF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아이비리그 8개 대학에 한국학 전공 기금교수직을 설치해 현재 모두 15명의 한국어(학) 교수가 활동 중이다.

또한 아시아 최고 명문대로 꼽히는 싱가포르국립대 내 동아시아연구소에 '코리아센터'를 설치했다. '코리아센터'는 한반도 문제 관련 연례 콘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한국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 한국 학자 및 관료와 인적교류 활동, 아세안과 한반도 평화를 다루는 계간지 발간 등을 추진한다. **창**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프린스턴대 전경.

이주 100주년을 맞아 쿠바의 한인들을 생각한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1년, 약 300여 명의 우리 선조들이 멕시코 유카탄을 떠나 쿠바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에네켄 농장에서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주권을 잃어버린 조국이 독립을 찾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독립운동을 꾸준히 지원하였으며, 이듬해에는 한인 2세대의 한글 교육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매년 3·1절을 맞아 기념행사와 행렬을 거행하였다.

1945년 8월 조국이 광복의 기쁨을 맞았으나,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조국의 분단으로 남과 북이 서로 총부리를 맞대게 되는 상황에서 조국의 앞날에 희망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 특히 1961년 쿠바의 사회주의 선언으로 우리와 쿠바 간의 국교가 단절된 이후 우리와의 연계성은 더욱 멀어졌다.

그 후 우리의 국력이 늘어나고 국제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쿠바 한인 후손들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간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모습을 조명해 보는 연습을 해 온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올해에는 이민 100주년이라는 계기를 맞아 비교적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다.

지난 3월 외교부는 '쿠바 한인 100년의 발자취' 사진전을 외교타운 국민외교센터에서 개최하였다. 또 한·중남미협회는 금년 초 1세대로서 독립운동을 펼치면서 '쿠바 이민사'를 집필한 임택 선생의 따님인 마르타 임 김이 쓴 '쿠바의 한인들'이라는 스페인어책을 번역 출간했다.

또 주멕시코대사관은 '쿠바이민 100주년 기념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은 금년도에 불어 닥친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이 여의치 못했던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을 내년 1월 하반기에 현지에서 개최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오늘날 쿠바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은 현지인과 피가 섞여 부득이 한민족의 피는 흐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피 속에는 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품은 조국 독립이라는 숭고한 염원이 도도히 흐르고 있고, 이러한 염원을 이어받아 하나 된 조국을 위하여 이들도 기도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100년 전 내디딘 우리 선조들의 발걸음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본다. 이들의 기도에 보답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되리라! **장**



신승철
한·중남미협회 회장



재외동포 민원 신문고 활용하세요


병무


국세


국적회복


건강보험


영사관련업무


교육

신청절차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STEP. 06
 로그인 (회원가입)	 민원인정보 입력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신청서 파일 첨부	 제출	 완료 및 결과확인
로그인(회원가입)	민원인정보 입력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신청서 파일 첨부	제출	완료 및 결과확인
로그인(회원가입) 코리안넷 홈페이지 로그인(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민원인정보 입력 재외동포 민원>재외동포 민원신청 메뉴에서 민원인 정보 입력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신청 페이지 하단에서 신청서양식을 다운받아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					
신청서 파일 첨부 작성한 신청서를 파일 첨부(추가파일이 있을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파일 첨부)					
제출 [제출] 버튼 클릭					
완료 및 결과확인 민원신청 완료(마이페이지>나의 민원)>민원조회 메뉴에서 처리결과 확인)					

재외동포재단은 코리안넷(www.korean.net)에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들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재외동포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통 창구로 병무, 국세, 국적회복, 건강보험, 영사 관련 업무 등의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국문과 영문 양쪽으로 가능하다.

우선 코리안넷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국내 본인 인증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 민원 신청 사이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하면 된다.

신청 순서는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하고 나서 민원 신청 메뉴에서 민원인 정보를 입력한다. 이후 신청 페이지 하단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작성한 신청서를 파일 첨부를 한 후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에 민원 신청 완료에서 나의 민원에 들어가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11월의 재외동포재단 임원 동정

김성곤 이사장

- 11월 1일: 세계한인무역협회 제21대 출범식
- 11월 6일: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모국방문 개회식
- 11월 2일: 세계한상대회 평가회
- 11월 7~22일: 미국, 캐나다 지역 출장
- 11월 5일: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모국방문 환영만찬
- 11월 23일: 제 20차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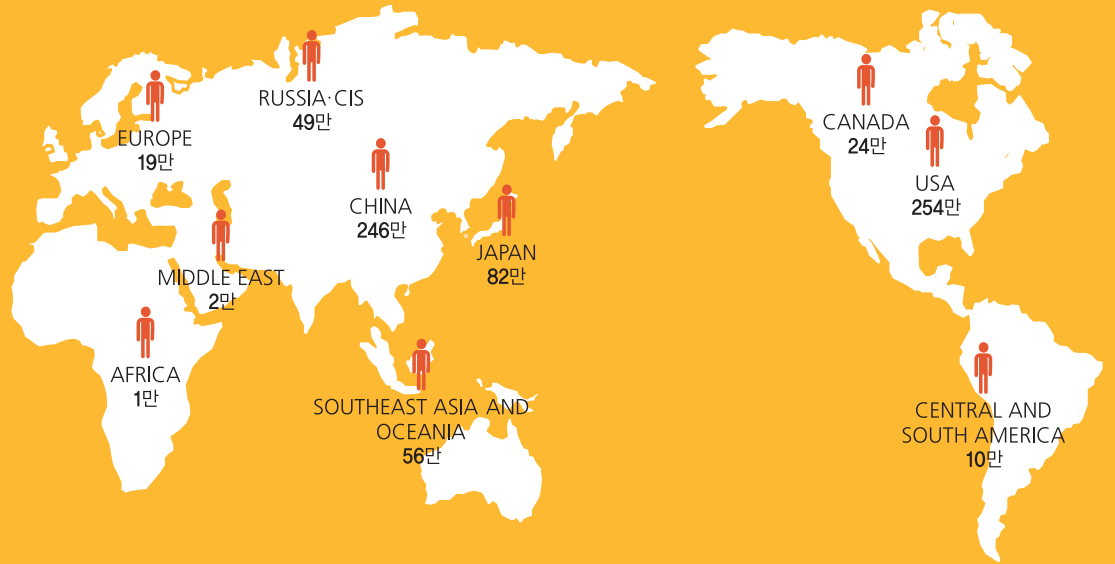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세계 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